

경향신문

이수형 교수·김종화 전 한은 부총재보, 신임 금통위원 후보에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2024.04.21 21:30



이수형 | 김종화(왼쪽부터)

한국은행이 신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으로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전 한은 부총재보가 추천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윤제·서영경 위원은 지난 20일로 임기가 만료됐다.

총 7명인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으로, 김 전 부총재보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으로 후임위원 후보에 올랐다.

1975년생인 이 교수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이 교수는 서강대 경제학 부교수, 세계은행 컨설턴트,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는 “이 후보자는 경제학 분야에서 풍부한 학문적 지식과 연구실적을 축적해왔다”며 “국제기구에서 컨설턴트를 역임해 통화정책의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세계경제 동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통위의 다양한 논의를 심도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총재보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았다. 김 전 부총재보는 1982년 한은에 입사해 국제국장, 부총재보를 거쳤으며, 금융결제원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을 역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 후보자는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을 두루거치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배양했다”며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